



책 읽기를 도와주는 창(窓) '독서이력서'

신희정*, 임성관**

목차

1. 머리말
2. 도서실 운영현황 및 독서이력서의 예
3. 도서실 이용현황
4. 맺음말

1. 머리말

독서이력서는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고천초등학교에서는 '독서기록부'라는 명칭으로, 도장초등학교에서는 '독서이력서'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이하 독서이력서라고 통일한다.) 이것은 학교도서실이 전산화 된 이후 도서실에서 대출했던 기록을 출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독서능력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독서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생활의 활성화와 올바른 독서습관의 형성 및 개개인에 맞는 독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현재 각 학급마다 학년초부터 독서록을 권장하여, 자신이 읽은 책을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자율성에 의존하다보니 불완전한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독서감상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몇몇 학생들만이 성실하게 기록하는 형편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서록에 평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기록하여 자신의 독서습관을 스스로 진단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 의례 감상문을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피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급에서는 독서록에 기재된 감상문 편수에 따라 독서장제 시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감상문 내용에 대한 첨삭지도나 독서경향에 대한 수준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독서이력서는 성인들이 학력, 경력, 자격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자신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이력서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독서이력서 역시 학생 개개인이 졸업하기 전까지 읽은 책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독서습관이나 독서형태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과연 나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어떤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고, 누적된 기록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독서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지 및 부여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서이력서가 도서실에서 대출했던 기록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아쉬운 점이다. 도서실에서 열람한 책 기록도 남을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개별 학생의 독서습관이나 독서형태에 대해 지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 읽은 기록인 독서이력서와 방과후의 기록인 독서록을 합쳐서 스스로 독서습관을 진단하거나 부모님께서 학생의 진로지도 자료로 삼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 도장초등학교 사서교사(jasjazz@dreamwiz.com)

** 고천초등학교 사서교사(harin75@orgio.net)

수 있을 것이다.

2. 독서이력서의 예

도장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에서 올해 실시한 독서이력서 결과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1 style="margin: 0;">독서이력서</h1>			
<p>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도장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했던 책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어졌습니다. 도서관이 전산화 된 이후의 기록만이 확인 가능하여 5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독서이력서를 작성한다면,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전산상의 오류로 대출기록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p>			
학반	6-1	이름	0 0 0
이용기간	2001. 5 ~ 2002. 1	총권수	0권
독 서 경 향	<p>(실례)</p> <p>00야! "만화 도라몽은 재미있게 읽었니? 얼핏 보기엔 유치한 만화 같지만, 사실 너도 읽었으니 알겠지만, 많은 상식이 들어 있는 책이란다. 사실 만화책 중에도 좋은 책이 많단다.</p> <p>00는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과학책 중에는 딱딱하거나 지루하게 구성된 책이 많지? 그 중 "도라몽 시리즈"나 "신기한 스쿨버스" 같은 과학책은 보기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도 많은 책이란다. 00가 다음에는 "앗, 이렇게..." 시리즈도 접해보았으면 좋겠구나.</p> <p>학교도서관에는 책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중학생이 되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00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꽂이에 가서 좋은 책을 골라 보렴. 글고 재미있게 본 책의 저자와 출판사를 기억해 두었다가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이나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책을 찾아 보렴.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난 책을 골라 읽는 방법중의 하나란다. 책을 골라 읽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단다. 00가 조금씩 더 많은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구나.</p> <p>00가 책과 친구가 되길 바라며...</p>		
<p>2002. 2. 19 도장초등학교 도서관(사서 신희정)</p>			

※ 그 뒷면에는 대출기록을 첨부해 줌.

〈그림1〉 도장초등학교 도서관의 독서이력서

고천초등학교 독서기록부

작성자 : 고천초등학교 사서교사 임성관

학년반 (도서대출ID)	6학년 4반 (S196199)	생년월일	89. 08. 22							
		이름	윤일섭(남)							
도서실 이용기간	6학년 2학기 전입									
총 대출권수 (도서열람도 포함)	2권									
분류번호별 대출권수	000 총류 (백과 사전 컴퓨터)	100 철학 (철학 동화 논리 논술)	200 종교 (종교 동화 믿음 사랑)	300 사회 과학 (교육 동화 전래 동화)	400 순수 과학 (과학 동화 동물 식물)	500 기술 과학 (과학 동화 우주 지구)	600 예술 (예술 동화 음악 미술)	700 어학 (우리 말 외국 어)	800 문학 (세계 명작 창작 동화)	900 역사 (위인 전기 역사 여행)
	0	0	0	0	0	0	0	1	0	1
사서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p>일섭이는 2학기에 전학을 와서 도서실 이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대출권수도 2권에 그치는 등, 어떤 분석을 해주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습니 다. 대출된 책의 면을 살펴봐도 한 번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이었고, 또 한 번은 독서록 작성을 위한 위인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 이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 였습니다.</p> <p>필요할 때에 도서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생각합 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도서실을 더욱 자주 이용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 그 뒷면에는 책꽂이 프로그램이 이용한 대출기록을 첨부해 줌.

(그림2) 고천초등학교 도서실의 독서기록부

3. 도서실 이용현황

도장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 도서실 운영 및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도장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의 도서실 운영현황

학교명	도장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전체 학급수	29학급	25학급
6학년 학급수	4학급	4학급
2002년 졸업자수	169명	178명
적용기간 ¹⁾	1년 6개월	1년 6개월
독서이력서 시행횟수	첫 번째	두 번째
도서실리프로그래	MAE 6.0	책꽂이 S/A
대출기간 및 권수	1주일간 2권까지	1주일간 2권까지
도서실의 위치	도서실-3층(2001년 11월에 이동), 6학년 교실-5층	도서실-4층, 6학년 교실-4층(6-4반은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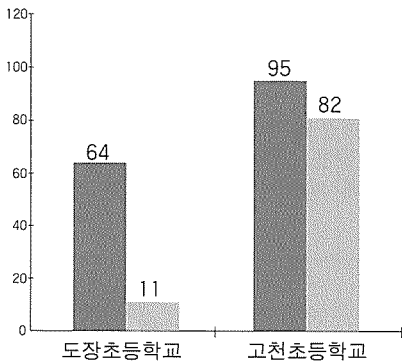
〈표2〉 도장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도서실 이용현황

학반	6-1	6-2	6-3	6-4	총계
재학생수	40명	42명	42명	45명	169명
독서자수	20명(50%)	25명(60%)	22명(52%)	42명(93%)	109명(64%)
독서권수	294권	190권	133권	603권	1,220권
개별평균	15권	8권	6권	14권	11권
최다독자	53권	45권	51권	54권	5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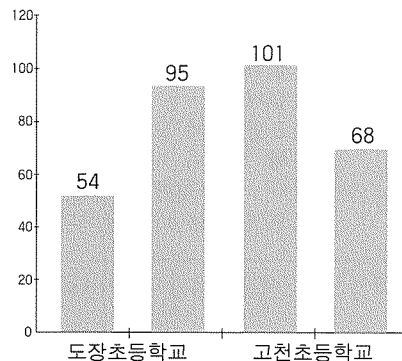
※ 재학생수 - 각 반 재학생의 수, 독서자수 - 반에서 1권이라도 대출권수가 있는 학생의 수, 독서권수 - 각 반에서 빌려간 총 대출권수, 개별평균 - 독서권수를 독서자수로 나눈 값, 최다독자 - 각 반에서 가장 많은 책을 빌려간 학생의 대출권수.

〈표3〉 고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도서실 이용현황

학반	6-1	6-2	6-3	6-4	총계
재학생수	44명	47명	44명	43명	178명
독서자수	41명(93%)	44명(93%)	43명(97%)	42명(97%)	170명(95%)
독서권수	2,217권	4,474권	4,338권	2,870권	13,899권
개별평균	54권	95권	101권	68권	82권
최다독자	415권	306권	754권	330권	754권



〈그림3〉 도장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 비교



〈그림4〉 고천초등학교 학급별 비교

1) 적용기간이란 사서교사가 근무하면서 도서실이 전산화되고 난 이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서실을 이용한 기간을 말한다.

4. 맺음말

도장초등학교는 2002년 2월 28일 현재 장서는 총 4,641종이며 평균 도서실 이용률은 10% 남짓이었고, 고천초등학교의 장서는 총 6,153종이며 평균 도서실 이용률은 95% 남짓이었다. 특히 고천초등학교는 2001년 2월에 그 당시 6개월 간 도서실을 이용한 2001학년도 졸업생들에게 처음으로 독서이력서를 발급하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 곳이다. 두 학교의 장서구성이나 도서실 이용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된 결과값을 추론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서실의 근접거리에 따라 독서권수에 영향을 미친다.”

도장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의 이용권수 차이와, 고천초등학교의 학급간 이용률 차이를 이로서 설명할 수 있다. 도장초등학교의 경우 전산화 당시는 1층에 위치하여 상층에 위치한 고학년들과 그만큼 거리가 멀었다가, 2001년 11월에서야 3층으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5층에 위치한 6학년들과 가까워졌다. 결국 6학년들이 도서실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은 2개월 간의 기간이었고, 대출시기도 11~12월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도서실과의 근접거리가 도서실 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천초등학교는 도서실과 6학년의 위치가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도장초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용권수를 보인다. 하지만 고천초등학교의 6학년 교실도 4반은 다른 반과 달리 3층에 위치하고 있고, 1반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급과 도서실과의 근접거리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가 나타남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도서실이 학생들과 가까워야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1년 6개월 간의 독서환경 조성은 아직 충분한 독서습관을 형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도장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의 주된 이용 도서를 살펴보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역사와 과학 분야의 도서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사춘기 소녀의 우정이나 감성적인 소설, 수필에 몰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만화 도라몽 시리즈/국민서관』이나 『만화로 보는 우리(세계)고전 시리즈/농인』 등이 인기도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6학년의 학생들이 읽기에는 너무 쉬운 내용이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입장에서는 고학년들이 이러한 책을 요구하더라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독서단계 역시 성장단계처럼 자연스럽게 거쳐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6학년이라고 하지만, 그 어린이가 적정 독서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6학년 수준의 책만을 권장한다면, 이는 그 어린이로 하여금 책을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금 늦더라도 독서단계는 한 단계씩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 주위에서 바라보는 어른들이 그 어린이의 독서수준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린이에게 “넌 유아도 아닌데 그런 책을 읽고 있지.” “만화는 제발 그만 보고, 세계 고전 좀 읽어라.”라는 식의 강요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이력서에 쓰여진 평가란(사서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점을 주지시키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면에 치중하고 있다.

독서이력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라면, 아이들이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학교도서실이 있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독서습관의 형성은 그리 어려운 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단 1권의 책이라도 도서실에서 빌려 읽어본 아이들은 도서실이란 존재를 알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어서도 학교도서실이나 대학도서실, 공공도서실을 이용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사회로 전이되는 현대에 있어 가장 큰 힘을 심어 주는 계기도 마련해 주리라 믿는다.